

아봐타:

자기 설계 훈련

-해리 팔머

과학은 어떤 신체적 특성들이 개인의 DNA에 유전적으로 암호화 되어 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푸른 눈동자와 어떤 이의 갈색 눈동자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 배열을 밝힐 수 있는 것 말입니다. 피부, 비늘, 날개, 머리카락은 물론 수 천가지 다른 신체적 특징들이 유전학적 형질로 설명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능, 사회적 행위, 인간의 동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본능, 사회적 행위, 인간의 동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예전에 돼지들을 애완용으로 기른 적이 있는데, 이 돼지들을 보니까 집을 짓는데 선천적으로 능숙하더군요. 이 때문에 아기 돼지 삼형제란 동화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화를 보면,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뭇가지로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벽돌로 짓는 부분은 작가가 지어낸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돼지들은 실제로 집을 지으며, 그것을 꽤 능숙하게 해낸답니다.

바이올렛이란 이름의 암돼지가 있었는데, 부드러운 흙 조금과 덩불 한 더미로 몇 시간만에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 돼지는 언제나 부지런했지요. 나뭇가지랑 한 줌의 잔디를 끌고와서 함께 쌓아 올리곤, 그 위로 올라가 평평해지도록 고르게 다듬었어요. 그런 다음 나뭇가지 몇 개와 잔디 조금을 더 가져와 다시 평평하게 펴 놓더군요. 처음에 저는 이 돼지가 높은 지능의 표석인 집의 토대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건물의 토대는 사실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데 토대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부딪혔다면, 그것이 바로 찾던 것이지요. 토대는 본능적 행위에서 지능적 행위가 생겨나는 분기점입니다. 이것은 집을 짓는데 뿐 만 아니라 삶을 건설하는데도 적용됩니다.

어쨌든, 바이올렛은 집을 짓고 있었고, 하향식으로 지어내려 갔습니다. 나뭇가지로 짜여진 더미와 잔디는 지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게 만족해 보이자 자신의 코를 이용하여 그 가장자리를 들어올려 덩불 밑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다음, 그 지붕을 자신의 등에 구부러지게 해 지고 일어나 지붕의 직경보다 좀 더 작은 원 안에서 흙 더미 벽을 밀어 올리기를 계속하더군요. 마침내 벽이 한 30센티미터 정도 높이가 되자 무릎을 다시 꿇고는 그 벽으로 둥근 지붕을 받히더군요. 마치 대성당과 의사당 건물들의 자연적인 원형을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올렛은 아주 체계적이었어요. 오후동안 돼지 한 마리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의 방수 지붕을 갖춘 완벽한 집을 완성했고, 집의 대부분을 그 안에서 다 지었지 뭐니까!

그 집에 출입구도 문도 없다는 사실이, 물론 쉽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일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일 12마리 아기 돼지를 낳아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기르려면 (몇 시간 후면 바이올렛에게 생길 일인) 이 문이 없는 디자인이 제격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이올렛은 상업 돼지 농장에서 왔는데, 콘크리트 축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다른 돼지로부터 한 번도 배워 번적이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순전히 본능의 산물처럼 보입니다.

바이올렛의 코의 넓이나 눈의 색깔은 분명 유전적 요인, DNA 합성으로 결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치만 집을 짓는 지식은요?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연 선택적으로 많은 세대를 걸쳐 발전해온, 어쩌다 깊은 수준에서 저장되온, 진화된 행위일까요….무엇일까요?

내게 지낼 곳을 쥐

어릴적에 대부분의 시간을 오두막을 짓는데 보내곤 했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거치는 발달의 한 단계처럼요. 이불과 의자로 거실 한 가운데 텐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문화적 차이와는 무관한 흔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동양계든, 인디안이든, 유목민이든, 어디서 태어났든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통 4세 경에, 어떤것 아래에서 기어다니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발달의 한 단계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의식내에서 울리는 본능적 메아리입니다.

전쟁이나 자연 재해를 당한 지역에 가보면 수 많은 집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행위가 자극된 것이지요. 어떤 참담한 비극의 충격에서도 조차, 논리적 사고와 추리가 멈춘 시점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조건에서도, 사람들이 마분지나 조각을 세워 붙이거나 플라스틱 조각을 펴 집을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집을 짓는 방법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강한 충동은 뿌리 깊은 본능입니다—둥지를 짓는 행위는 자기 보전과 가장 원초적 사회적 행동인 유성생식 간의 갭(gap)을 메웁니다.

바이올렛이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재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면서, 만일 어떤 집합적, 초월적 의식같은 것—신체 유전자

구조적 청사진을 전송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본능을 전송하는 어떤 것—이 없다면 어떻게 궁급했습니다. 집합 의식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이것은 마술, 종교, 진화, 어쩌면 전개된 우주 셀계까지도 말해줍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말이지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협상하는데 실패했던 과거로부터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모델링 하는 것은, 그게 집합 의식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됐을지라도, 당신이 얼마나 고루한가를 보여줍니다. 만일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작용했다면 나에게도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안전한 논점을 내리는 것이지만, 할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직면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생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던 말입니다.

60년대에 저는 히피가 되어 기성사회를 벗어나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계획은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직접 먹을 것을 기르고 집을 지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세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제껏 했던 일 중 가장 쉽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르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집을 짓는가에 관한 문제들은 이미 몇 백년 동안을 걸쳐 해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도 가졌고 먹을 것도 충분했고, 아주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마치 생의 소멸의 길에 서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번영은, 그것에 다다랐을 때에는,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삶의 목적으로 보이는)을 꼭 의미하지는 않더군요.

전에 공룡시대에 번성했던 한 열대 설치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작은 포유동물은 독특했는데, 우리가

털이라고 부르는 얇은 깃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열대지방에서 털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면 열대 환경에 적응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것은 큰 장애였습니다. 이 불쌍한 창조물은 지하에 살면서 오직 밤에만 밖으로 나왔는데, 털이 몸의 열 발산을 막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한 낮의 더위에서 사냥하는 냉혈 육식 동물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만일 충실히 삶의 경험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의 본능을 설계한 집합 의식에 관한 어떤 일지가 있었다면 이 쥐는 아마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겁니다.

사전 적응적 진화는 지능의 시초입니다. 아마도 털은 처음에는 단지 우연히 생긴 변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때때로 당신이 과거의 방식을 깨는 방법으로 생존한다는 집합의식의 가르침을 더해줍니다. 그 우주적 순간에 지구상에서의 삶은 본능을 넘어 지능에 대한 탐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선택과 결정 그리고 이들의 결과에 대한 탐험 말입니다. 큰 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본능은 새로운 능력들을 발달시키고 예측하고, 사전에 변성을 위한 행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지능에 의해 조용히 그 자리를 빼앗겨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공룡이 본능보다 지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빙하기 때 쥐와 같은 털 코트를 입고 살아남았을 겁니다. 공룡은 아바타 같은 도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창조물이 더 많은 지각력을 가질 수록 더욱 자기 설계적입니다. 자기 설계는 환상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능과 자기 설계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미래를 극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미래를 실현하는 힘을 일깨우게 됩니다.

수천 명의 아바타들이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기후 변화에 미리 적응할 능력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타인을 자비심 있게 바라보는 능력, 신뢰하는 능력, 나누는 능력, 타인을 위한 봉사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능력말입니다.

밝음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능과 자기 설계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미래를 극복하고 미래를 실현하는 힘을 일깨우게 됩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낮에는 비늘과 두꺼운 가죽을 가진 동물들이 온통 활기를 쳤습니다.

쥬라기 늑의 통치자들이 지상으로 굴을 파고 나온 이 작고 털많은 설치류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털보야! 지하에서 사는 주제에! 뭐 이런 이상한 놈이 다 있어! 하며 말입니다. 그러다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생물 분류학 책이 있다면 나머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말해줄 것입니다. 빙하기 동안 설치류는 살아 남았지만 공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털이 자란 것은 사실 사전 적응적 진화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눈이 몰아치기 직전에 생겨난 돌연변이였던 것이지요. 원하시면 이것을 어이없는 행운이라 부르세요. 그러나 털을 나게 한 것과 굴을 파는 능력은 미래를 위해 쥐들의 조상을